

독서수업
지도안

초등학교 6학년

문학이 온다 **상상편** 독서 워크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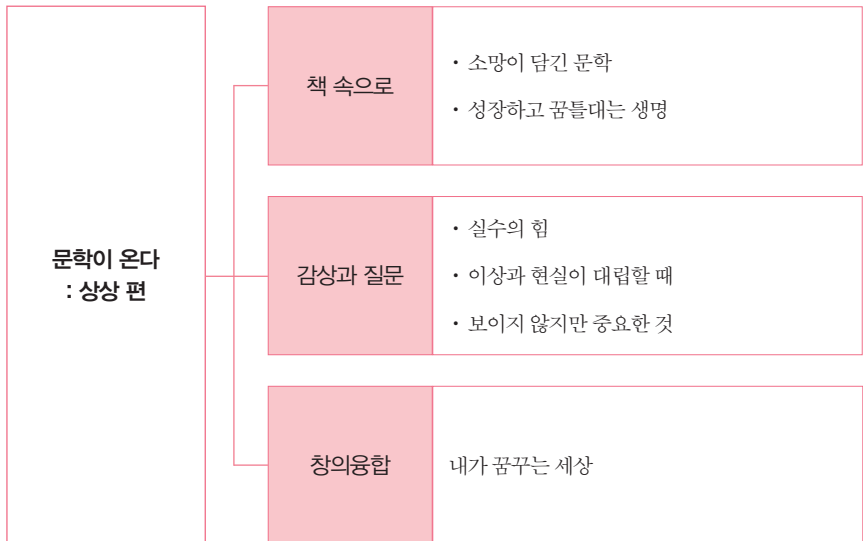


박재은 · 윤여정 · 홍성아 역음 | 이지은 그림


■ 책 소개

『문학이 온다』 시리즈는 현직 국어 선생님들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가려 뽑았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 고전 문학뿐 아니라 외국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는 ‘감상 수업’과 ‘질문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감상 수업’은 작품에 대한 지식을 알려 주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작품을 읽은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상을 제시하는 데 우선하였고, ‘질문 수업’은 독자가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작품을 읽으면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에 감정이 이입되고,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상상 편’을 읽고 확립화된 가치 기준을 강요하는 세상에 맞서 ‘상상’의 힘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국어 교과 | 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제목, 앞뒤 표지, 머리말

책의 제목, 앞뒤 표지의 글귀, 그림을 살펴보세요.

1. 책의 앞표지 그림에 나타난 인물과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예상해 보세요.

인물	
배경	

(2~3) 『문학이 온다 : 상상 편』의 뒤표지에 쓰여 있는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문학 작품은 왜 읽어야 할까요?

시를 통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상상력에 흠뻑 빠질 수 있습니다. 소설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지닌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갈등과 고민을 접하며 삶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필을 통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한 미래는 지식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청소년들에게 문학 작품 읽기는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문학이 온다』를 펴내며' 중에서

2.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떤 면에서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지 써 보세요.

⇨

3. '상상'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예술 작품이 있나요? 영화, 드라마, 음악, 뮤지컬, 문학,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중에서, 상상력과 관련이 있는 작품을 소개해 보세요.

⇨

독서 후

💡 **책 속으로** ① 마음이 설레는 문학 작품

1. 책의 목차를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문학 작품을 고른 후 그 이유를 써 보세요.

『문학이 온다 : 상상 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이다.

왜냐하면,

2. 『문학이 온다 : 상상 편』은 다양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시공간을 초월해 만나서 책 속 인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만나보고 싶은지 말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써 보세요.

⇨

💡 **책 속으로** ② 말하는 이(화자)의 태도

※ 시 「낙타」의 본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낙타	무겁겠다 애
	- 손동연
	아니야,
저런,	이건
등에	내 도시락인걸!
혹이	
두 개씩이나?	타박타박 사막이
	즐겁단다 애
사막을 터벅터벅	

1. 이 시에서 말하는 이(화자)가 '낙타'를 바라보는 태도는 어떠한가요?

⇨


2. 똑같은 상황을 두고 누군가에게는 힘든 일,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독서 후

💡 책 속으로 ③ 그림을 보고 시로 표현하기

※ 다음에 제시된 그림이나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림을 보며 상상한 내용을 시로 표현해 보세요.

그림	시로 표현하기	
 <p style="text-align: center;">샤갈, 「나와 마을」</p>	<p>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김춘수</p> <p>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 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쫓는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p>	<p>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 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p>



고흐, 「귀에 붓대를
감은 자화상」



이중섭, 「흰 소」

독서 후

책 속으로 ④ 소망이 담긴 문학

※ 소설 「흥부전」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흥부가 깜짝 놀라 구렁이를 쫓고 보니, 이 구렁이란 놈이 부모 제비와 제비 새끼 다섯을 다 잡아먹어 겨우 하나만 남아 있었다. 다행히도 하나 남은 이 제비 새끼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날기 공부를 하는데 그만 또 대말 틈에 발이 빠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가련한 네 목숨 구렁이에게 죽지 않아 다행이다 했더니 이번엔 또 다리가 부러지다니, 이게 웬 말이냐. 네 신세 가련하니 내 기어이 살리리라.” / 흥부는 다 죽게 된 이 제비를 불쌍히 여겨 부러진 다리에 조기 껌질을 벗겨 돌돌 말고, 오색실로 찬찬 감아 등지에 넣어 주었다. 십여 일이 지나서 보니 부러졌던 제비 다리가 감쪽같이 굳어 있었다.

(나) 흥부 자식들이 외락 달려들어 밥 먹느라 정신없을 적에 흥부 아내가 흥부에게 밥을 권하는데, 이 흥부 하는 양이 또 불만하다. / “나는 저렇게 자식들처럼 밥을 먹을 게 아니라 아예 밥 속에 가서 드러누워 먹으려네.” / 흥부가 밥 속에 가서 누우니 흥부 아내도 얼른 밥 속에 가서 드러누웠다. / “뚝, 뚝, 뚝, 뚝뚝, 뚝뚝, 뚝뚝! 이렇게 몽쳐 가지고 올라가거라, 뚝뚝!”

흥부가 밥을 먹는데 한 주먹 몽쳐서 던져 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 놓는데 밥을 어찌나 많이 먹어 났던지 이젠 아예 밥 먹다 숨이 넘어갈 판이다.

“아이고! 우리 영감 돌아가시네. 밥이 없어 배고파 죽겠더더니 이제는 밥을 많이 먹어서 돌아가시네! 아이고 영감, 정신 차려요!” / “아이고, 나 죽는다!”

이 꼴을 보고 밥 먹느라 정신없던 큰아들이 헐레벌떡 달려와 보니, 흥부 배에 밥알이 훤히 비치고 있는 게 아닌가!

“엄니, 우리 아버지 배에 강아지 한 마리 몰아넣읍시다!” / “아이고, 이놈아! 아버지가 다 죽게 생겼는데 강아지가 배 속에 들어가서 어쩐다냐?” / “아, 밥을 퍽퍽 파먹을 게 아니요?”

1. 윗글 (가)와 (나)에 나타난 흥부는 어떤 사람인가요?

⇨

2.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제비의 도움을 받아 부자가 된 흥부의 이야기를 읽고,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독서 후

💡 책 속으로 ⑤ 성장하고 꿈틀대는 생명

※ 『문학이 온다: 상상 편』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해비 - 윤동주

아씨처럼 내린다.

보슬보슬 해비

맞아 주자, 다 같이

옥수숫대처럼 크게

닷 자엣 자 자라게

해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하늘 다리 놓였다.

알롱달롱 무지개

노래하자, 즐겁게

동무들이 어리 오나.

다 같이 춤을 추자.

해님이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

(나) 지렁이 울음소리를 들어 본 적 있나요? 묵숨 있는 것들은 다 울지요. 심지어 기뻐서 눈물이 터질 때도 있지요. 누군가 자신의 고민과 상처를 이야기하다 울음을 터뜨렸다면, 그 사람은 꽤 짝은 거예요. 운다는 건 상처를 극복할 힘이 있다는 거지요. 유마의 말을 빌려야겠네요. 세상이 죄다 병들었는데 나만 희희낙락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다 아픈데 나만 안 아플 순 없는 겁니다. 묵숨이 있는 존재란 누군가에 기대어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 울음은 웃음만큼이나 소중한 겁니다. 울음은 자기를 비워 내는 강력한 몸의 말이지요. (중략)

여리지만 분명한 울음소리 혹은 노랫소리. 모두 잠든 밤 조용히 땅 위로 나와 달빛을 즐기는 지렁이를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단 한 순간도 다른 생명을 착취해 본 적 없는 지렁이. 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이 있지요. 이런! 지렁이는 안 밟아도 꿈틀합니다. 꿈틀하는 역동이 생명의 본질이니까요. 밟아야만 꿈틀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렁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1. 시인 윤동주가 (가) 「해비」를 창작했던 시기는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시인은 암울한 시기에 이 시를 어떤 마음으로 쓰게 되었을까요?

⇒

2. 윗글 (나)의 주제를 고려하여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을 평가해 보고, ‘내가 안다고 믿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써 보세요.

⇒

독서 후

감상과 질문 ① 실수의 힘

※ 『문학이 온다: 상상 편』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그래, 저 사람은 화가가 틀림없어. 마사 양은 그림을 다시 자기 방으로 가져갔다. 안경 너머 그의 눈빛은 얼마나 부드럽고 다정하던지! 그 흰한 이마는 또 어땡고! 한번 슬쩍 보고 원근법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라니! 그런데 딱딱하게 굳은 빵만 먹고 산단 말인가! 물론 전제 들은 인정받기 전까지 종종 그런 시련을 겪는 법이지만.

만약 이 천재가 이천 달러의 은행 잔고와 빵집,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의 후원을 받는다면, 예술과 원근법에 얼마나 대단한 도움이 될 것인가. 하지만 그건 한낱 백일몽일 뿐이지, 마사. (중략) 마사는 그가 점점 여위어 가고 기운을 잃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들고 가는 빈약한 빵 봉지에 뭔가 맛있는 걸 더 넣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나) 옛날 중국의 광휘원이란 사람이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아내의 답시는 이러했다.

벽사창에 기대어 당신의 글월을 받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흰 종이뿐이옵니다.

아마도 당신께서 이 몸을 그리워하심이

차라리 말 아니하려는 뜻임을 전하고자 하신 듯하여이다.

이 답시를 받고 어리둥절해진 광휘원이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아내에게 쓴 의례적인 문안 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아마도 그 옆에 있던 흰 종이를 편지인 줄 알고 잘못 넣어 보낸 것인 듯했다. 백지로 된 편지를 전해 받은 아내는 처음엔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다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 여백을 읽어 내었다. 남편의 실수가 오히려 아내에게 깊고 그윽한 기쁨을 안겨 준 것이다.

1. 윗글 (가)의 마사 양과 윗글 (나)에서 광휘원의 아내는 각각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나요?

⇨

2. 윗글 (나)에서 광휘원의 실수는 오히려 아내에게 의외의 즐거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광휘원이라면 아내에게 자신의 실수를 고백했을까요? 실수로 이익을 얻었을 때 양심적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도 적어 보세요.

⇨

독서 후

💡 감상과 질문 ② 이상과 현실이 대립할 때

※ 소설 「책만 읽는 바보」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온종일 방에 들어앉아, 혼자 실없이 웃거나 끄꿍대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책만 들여다보는 날도 많았다.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고 ‘간서치(看書痴)’라고 놀렸다. 어딘가 모자라는, 책만 보는 바보라는 말이다. 나는 그 소리가 싫지 않았다. (중략)

가만 생각해 보니, 배고플 때뿐이 아니었다. 추위에 떨 때, 근심 걱정에 시달려 마음이 복잡할 때, 아플 때도 책을 읽으면 그 모든 괴로움이 덜어지는 듯했다. 그럴 때마다 문득 느꼈던 책 읽기의 이로움을 나는 이렇게 써 두었다.

첫째, 굶주린 때에 책을 읽으면, 소리가 훨씬 낭랑해져서 글귀가 잘 다가오고 배고픔도 느끼지 못한다. / 둘째, 날씨가 추울 때 책을 읽으면, 그 소리의 기운이 스며들어 떨리는 몸이 진정되고 추위를 잊을 수 있다. / 셋째,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책을 읽으면, 눈과 마음이 책에 집중하면서 천만 가지 근심이 모두 사라진다. / 넷째, 기침병을 앓을 때 책을 읽으면, 그 소리가 목구멍의 걸림돌을 시원하게 뚫어 괴로운 기침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

(나) 굶주림. 나에게 밥을 먹는 것보다도 굶주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다. 내 몸에는 임금님과 성이 같은 왕실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나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서자의 집안, 반쪽의 핏줄이다. 본가의 적자(본부인이 낳은 아들)가 아니니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니 살림을 꾸려 갈 녹봉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여 놓고 장사를 할 수도 없었다. 온전한 양반들만의 세계에 끼워 주지도 않으면서, 또 다른 반쪽의 핏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비웃으며 허락하지 않았다. 글을 읽어 깨친 뜻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땀 흘려 일하지도 못하고, 그저 별도리 없이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었다. 음식을 담아 본 지 오래인 그릇은 이가 빠지고, 소반은 저절로 닳아 살림은 누추하기 짝이 없었다. 그 가운데 나는 애써 소리 내어 책을 읽고 또 읽었다.

1. 윗글 (가)를 읽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책 읽기의 다섯째 이로움’을 추가해 써 보세요.

↳

2. 윗글 (나)에서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이덕무가 책만 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독서 후

감상과 질문 ③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

※ 소설 「어린 왕자」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누구든 자기가 길들인 것밖에는 알지 못하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었어. 상점에 가서 다 만들어진 물건들을 사는 거야. 하지만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어. 친구를 갖고 싶으면 나를 길들여 줘!” (중략)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거기로 갔다. /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걸.” 여우가 말했다. “가령, 네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난 세 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네 시가 되면 난 벌써 흥분해서 안절부절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 그러나 네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오면 나는 몇 시부터 마음을 끈게 단장해야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의식이 필요한 거야.” (중략) “의식이 뭐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 “그것도 사람들이 너무나 잊고 있는 것이지.” 여우가 말했다. / “어떤 날이 다른 날들과, 어떤 시간이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게 의식이야. 가령, 나를 쫓는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과 춤을 추지. 그래서 나에게 목요일은 신나는 날이야! 나는 포도밭까지 산보를 갈 수 있어. 하지만 만약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고 해 봐. 모든 날이 다를 바 없이 다 같은 날일 테니 난 하루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할 거야…….” (중략) / “그럼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잘 기억해 두기 위해서 어린 왕자가 되뇌었다.

1. 윗글에서 여우가 말한 ‘길들인다’는 것은 무엇인지 써 보세요.

⇨

2. 여러분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 오늘을 어제와 다르게 구별되게 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

3.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와 함께 써 보세요.

⇨

4. 여러분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어른들’에게 어떤 충고를 하고 싶으세요?

⇨

독서 후

💡 창의융합 내가 꿈꾸는 세상

※ 『문학이 온다: 상상 편』에서 발췌한 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훈민정음』 값으로는 만 원을 쳤습니다. 『훈민정음』 같은 보물은 적어도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제 입장이 있고 또 남의 이목도 있으니, 『훈민정음』을 인수하는 건 여기 이순황 선생이 맡아 주실 겁니다. 이해해 주시겠지요?”

김태준은 만 원이라는 소리에 다시 한번 놀랐다. 전형필의 배포가 남다르고, 부르는 값이 낮아도 정당한 값을 계산해서 치른다는 말은 들었지만, 만 원이라니! 『훈민정음』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그로서는 구경조차 해 본 적이 없는 큰돈이라, 할 말을 잊은 채 한동안 전형필을 바라보았다. (중략)

마침내 전형필 앞에 놓인 『훈민정음』! 한글을 만든 원리와 문자 사용에 대한 설명과 용례를 상세하게 밝힌 해례본이었다. 전형필은 밤이 새도록 『훈민정음』을 읽고 또 읽었다. 만들어진 지 500년 만에 발굴된 보물 중의 보물이었고, 전형필이 수집을 시작한 지 십여 년 만에 성취한 대박 굴이였기에, 눈물을 흘리다가는 웃었고, 웃다가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나) 북

- 최승호 하늘에서는 천둥이 친다

광 광 광

고래들이 꼬리를 들어

하늘이 커다란 북이다

바다를 친다

탕 탕 탕

내 가슴에서는 심장이 뛰다

바다가 커다란 북이다

쿵 쿵 쿵

가슴이 북이다

1. (가)에서 간송이 『훈민정음』을 발견한 것은 일본이 한글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던 시기입니다. 간송 전형필이 비싼 돈을 치르면서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무엇인가요?

↳

2. (나)를 읽고, 여러분의 가슴을 ‘쿵 쿵 쿵’ 뛰게 하는 상상을 써 보세요.

예시답안과 가이드

■ 독서 전

1. (예시답안)

- 인물 : 사막에 있는 어린 왕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하늘에는 달이 떠 있고, 어린 왕자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던 「어린 왕자」의 분위기와 비슷하지만 머리카락이 크게 부풀어 있어서 낯설게 느껴진다. 문학 작품집의 주제가 ‘상상 편’인 점으로 보아, 주인공들이 어린 왕자처럼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고, 새로운 생각을 배우는 과정이 그려질 것 같다.
- 배경 : 표지의 귀퉁이에는 ‘교과서 삼색 문학 읽기’라는 단어가 있다. 표지 전체는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상상’이라는 주제를 붉은색으로 표현한 것 같다. 빨강은 멈춤을 의미하기도 하며,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위험을 상징하기도 한다. 하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태양의 색이기도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혁명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의 내용이 더 기대가 된다.

2. 답안 생략.

(가이드)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험하지 못한 일이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물을 마음속에서 생각해내거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상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상력이 풍부한 예술가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피카소는 버려진 자전거를 가지고 안장과 핸들을 떼어낸 다음 다시 결합하여 「황소 머리」라는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 있던 일상적인 물건에서, 상상력을 통해 ‘황소’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3. (예시답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마법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해리포터」 시리즈와 토끼를 따라 굴로 들어간 후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판타지 영화들이 떠오른다.

문학이 온다 상상편

▣ 독서 후

❖ 책 속으로 ① 마음이 설레는 문학 작품

1. (예시답안) 『문학이 온다 : 상상 편』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은 「어린 왕자」이다.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등장인물이 하는 말들이 새롭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구에는 수많은 장미꽃이 존재하지만, 어린 왕자는 자신이 물을 주고 관심을 주고, 길들인 장미꽃만을 특별하게 생각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장미꽃이 있는 자신의 별로 돌아가기 위해, 여우와 이별을 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2. (예시답안) 내가 가장 만나보고 싶은 인물은 「마녀의 빵」에 등장하는 설계사 블럼버거이다. 빵집 주인 마사의 선부른 예측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노력해 완성한 작업을 망치게 된다. 물론 그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마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사가 딱딱한 빵에 버터를 왜 넣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싶다. 마사의 의도가 다정한 호의였다는 것을 알고 나면 블럼버거 씨의 분노가 많이 누그러질 것 같다.

❖ 책 속으로 ② 말하는 이(화자)의 태도

1. (예시답안) 1, 2연에서 말하는 이(화자)는 등에 혹을 두 개씩이나 달고 사막을 여행하는 ‘낙타’를 안쓰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낙타는 등의 혹은 자신의 도시락이며 사막을 타박타박 걷는 일이 즐겁다고 대답한다. 말하는 이(화자)는 힘든 일이 있어도 즐겁게 극복하려는 낙타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 (예시답안) 누구나 힘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힘든 일도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다. 즐겁게 일을 하려는 마음가짐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스스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 책 속으로 ③ 그림을 보고 시로 표현하기

답안 생략.

(가이드) 그림에 나타난 인물이나 풍경에서 어떤 분위기나 감정이 느껴지나요? 그러한 분위기와 감정에 따라 그림 속에 숨은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고희는 왜 귀에 봉대를 감았을까요? 상처를 입었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러한 스토리를 담아서 시로 표현해 보세요.

❖ 책 속으로 ④ 소망이 담긴 문학

1. (예시답안) (가)에서 흥부는 가난하게 살지만 마음이 넓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다. 새끼 제비도 불쌍히 여겨 보살피는 모습에서 그의 선한 마음을 더욱더 잘 드러난다. (나)에서 흥부의 모습은 우스꽝스럽게 그려진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기뻐하며 밥 뭉치를 던져서 받아먹거나,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다고 말하는 상황은 가정으로서의 무능함과 가난의 우울함을 과장해서 해학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2. (예시답안) 「흥부전」은 정확한 창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조선 시대에 판소리로도 불렀고, 한글 소설로도 만들어졌다. 당시 흥부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읽으며 대리 만족을 느꼈을 것이다. 선한 마음을 가진 흥부가 보상을 받는 장면을 통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 통쾌함을 느꼈을 것이다.

❖ 책 속으로 ⑤ 성장하고 꿈틀대는 생명

1. (예시답안) 해비는 여우비라고도 한다. 예상치 않게 홀연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여우처럼 햇별이 난 날에 잠깐 내리는 빗속에서 아이들은 즐겁게 춤추며 노래하고, 해님은 웃는다. 해비를 맞으며 아이들은 크다. 작기는 암울한 일제 강점기이지만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비를 맞으며 즐겁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문학이 온다 상상편

2. (예시답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은 잘못된 표현이다. 지렁이가 밟아야만 꿈틀하는 한없이 작은 존재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지렁이는 늘 자기 나름대로 역동하고 있는 생명체이다. 작가는 단 한 번도 다른 생명을 착취해 본 적이 없는 지렁이와 같은 작은 생명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 의심해 보고, 약자의 입장에서 주변을 살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미이다.

❖ 감상과 질문 ① 실수의 힘

1. (예시답안) (가)에서 마시는 가게에 들르는 손님을 가난한 화가라고 선부르게 단정했으며 (나)에서 광휘원의 아내는 남편이 실수로 보낸 편지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

2. (예시답안)

- 내가 광휘원이라면 아내에게 실수를 고백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내의 성품이라면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아내가 편지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 내가 광휘원이라면 아내에게 실수를 고백하지 않을 것이다. 실수 때문에 아내가 피해를 보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오히려 실수로 인해 아내가 감동을 하게 되었고, 광휘원에게 어떤 목적이나 약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또한 아내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속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바로잡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감상과 질문 ② 이상과 현실이 대립할 때

1. (예시답안) 다섯째,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책을 읽으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시공간을 초월해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과 막역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예시답안과 가이드

2. (예시답안) 주인공 이덕무는 신분제를 유지하던 조선 시대에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문과에 응시해 뜻을 펼 수 없었다. 신분제에 따른 차별 대우 때문에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책을 읽으며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 감상과 질문 ③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

1. (예시답안) 길들인다는 것은 수많은 여우들 중 한 마리에 불과했던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특별한 의미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행복해지거나, 그를 생각할 때 마음이 설레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뿐인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2. (예시답안) 내 삶을 즐겁게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어제와 오늘을 구별되게 만드는 것은 오늘은 그만큼 내가 바라는 미래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희망이다. 물론 원하는 기대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나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예시답안) '상상력, 믿음, 희망, 정직, 연민, 사랑, 공감, 자존감' 등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가치는 너무나도 많다. 그중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는 '상상력'이다. 내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상상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나의 미래에 대해 상상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고 하루하루 쫓기듯 살아가면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상력'이 가장 중요하다.

4. (예시답안) 「어린 왕자」에는 어른들이 숫자에만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하고, 무엇이든 서류를 통해 확인한 후에야 안심을 한다.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이 꼭 진실은 아니다. 어린 왕자가 그린 보아구렁이 그림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상상해보라고 어른들에게 조언하고 싶다. 어른들도 전에는 모두 어린아이였으니까 그때의 마음을 떠올려 보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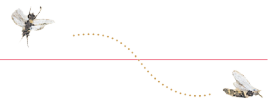
문학이 온다 상상편

❖ 창의융합 내가 꿈꾸는 세상

1. (예시답안) 간송 전형필은 일제가 우리 문화를 노골적으로 말살시키고 있을 때,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신을 지키고자 노력하신 분이다. 그는 문화재를 단순히 금전적 가치로만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민족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을 되찾고자 했으며, 그것이 항일 독립 운동의 한 방법이었던 점에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답안 생략.

(가이드)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 친한 친구와 짝이 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 나의 꿈이 실현되는 것 등 나의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까지 상상해 보고, 자신이 어떤 상상을 할 때 행복한지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응진 주니어

값 14,000원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